

# 여성 시간당 임금 남성 70% 수준



▲ 2023년 한국 여성 취업자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의 70%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진=KBS뉴스

한국의 여성 취업자 수가 2022년 1,216만1,000명으로 10년 전보다 177만4,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시간당 임금은 남성의 70%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 27일 '여성신문'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 여성 근로자의 월임금 총액(정액급여+초과급여+전년도특별급여/12)은 268만3,000원, 남성은 412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시간당 임금으로 비교하면 여성 근로자는 1만 8,113원, 남성은 2만5,886원으로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의 70%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2년 여성 실업자는 38만5,000명, 실업률은 3.1%로 전년 대비 각각 7만6,000명, 0.7%포인트 감소했다.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절반이 넘는 55.3%(577만8,000명)의 주된 활동 상태는 가사로 나타났다.

2022년 종사자 규모별 여성 취업자 분포를 살펴보면 1~4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여성 취업자는 430만 8,000명으로 전체의 3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29인(227만4,000명, 18.7%), 10~29인(227만4,000명, 18.7%), 30~99인(188만1,000명, 15.5%) 순이었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여성 취업자는 전체의 8.4%인 102만2,000명으로 파악됐다.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은 1~4인 규모에서 36.4%로 가장 높았고,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낮아져 5~299인 사업장에서 14.6%, 300인 이상에서는 13.2%로 파악됐다.

# 전국이 일손 부족... "코로나 때보다 심각"

급속한 고령화 현상에 고된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려는 근로자가 줄면서 올해 한국의 인력 사정이 팬데믹 사태 이전보다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어 소통 능력이 좋은 유학생이나 증속련 외국 인력을 늘리고, 단순 제조업에 대한 자동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경기 김포시의 한 제조공장에서 작업 중인 외국인 근로자. 사진=hankyung.com

지난 27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전날 '지역 노동시장 수급 상황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손 부족 상황이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더 악화했다.

이 기간 전 직종을 통틀어 구인은 36.6% 늘었지만, 구직은 14.7% 증가하는데 그쳤다.

제조업 상황은 더 심각하다. 팬데믹 이후 제조업 현

장직 구인은 45.5% 뛰었지만 구직은 2.1% 줄어 수급 불균형이 심해졌다. 30대 이하 젊은 연령층뿐 아니라 40대도 제조 현장직을 기피하면서 구직자가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40대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도 일손 부족 사태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40대 인구는 지난 11월 790만9,000명으로 1년 새 13만9,000명 줄어 4년 3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40대 인구는 올해 11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2만명 줄어 15~29세 청년층(17만8,000명) 다음으로 많이 줄었다.

직종별로는 생산·현장·특수기능직,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업종별로는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일손 부족을 호소했다.

# "2038년 한국, GDP 세계 9위 오를 것"

15년 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9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7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블룸버그 통신은 전날 영국 싱크탱크 경제비즈니스연구소(CEBR)의 자료를 인용해 "2038년이 되면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 반열에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3년 기준 세계 13위인 한국은 4계단 올라서는

반면, 현재 각각 8위와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캐나다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난다는 것이다.

CEBR은 "한국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잘 극복하고 올해 1.4%의 견고한 성장률을



▲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비어있는 오람. 사진=연합뉴스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2.2%의 실질 GDP 증가율을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걸림돌로 평가됐다. CEBR은 "한국의 인구감소가 인력부족, 공공재정에 대한 부담 등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CEBR은 15년 뒤 중국은 미국을 누르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2023년 현재 GDP 1위는 미국이다. 특히 세계 최다 인구를 보유한 인도가 2038년에는 독일, 일본을 제치고 중국 미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됐다.

## Kyung Sook Yu, D.D.S

### 여름방학 스페셜 교정치료!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크라운  
(PFM)  
\$500

잇몸치료  
\$200부터

틀니  
\$1500

Free 임플란트 상담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3000  
부터  
(무료상담)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Imperial Hwy  
S. Beach  
● 유경숙 치과  
예당식당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 - 목 9am - 6pm